

연증 제 20 주 일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숲 정 이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기도서 P. 414 A해

제1독서(이 사 56, 1. 6-7절)
제2독서(로마11, 13-15. 29-32절)
복 음(마 태 15, 21-28절)



진정한 신앙인 이란?

김 기 수 신부

현 사회를 잠깐 볼 때, 우리는 분명 순간마다 매사에 의심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제물이 마치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인양, 권력과 금력에는 자기의 온 정열을 다 쏟아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에게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방식 아래서,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지 않으면 쉽게 의심해 버리고, 체험치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타인을 불신하는 풍토가 현 사회에서는 쉽게 조성되어, 쉽게 믿고 긍정하기 보다, 의심하고 부정하여 우리주위에서 "정말" "참말로" "진짜로"라는 단어들을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 시대는 분명 슬픈 불신의 시대요, 자기 중심적인 시대요, 유혹이 만연된 시대라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현 시대에서 진정한 신앙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성전에 나가 교만이 가득차 기도드리는 바리사이와 사람이(루카 18, 9-14) 아닐 것이며, 언제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던 위선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란 가나안 여자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이가 아닐까요?

즉 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지식만 가지고 확신할 수 없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생활상의 규율에 얽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 충실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또 관계되는 장소에 대해, 우리가 살고있는 집단에 대해, 우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주시하면서 눈을 먼 하늘과 땅상에 돌리고 이상에 자신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걸고있는 현실 즉 땅을 바라보고 살면서, 신앙의 빛으로써 자신의 길에 대해 묵상하면서, 자기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삶의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특히 조그마한 집단의 우리안에서 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그마한 실생활 안에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또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깊이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나 자신보다 먼저 타인을 위한 삶, 나의 의견보다 주님의 의견에 따라 사는 삶, 주님의 결손된 자제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계 전주교회 보좌신부>

□ 귀국 인사 □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 왔습니다. 교형자매들의 뜨거운 열려와 기도의 힘이라 믿어, 우선 이렇게 간단한 안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황성하의 압현이 제 1목적이었던 저의 여행은 교황성하의 생전에 그분을 뵈을 수 있었음과, 우리 교구에 대한 자상하신 관심과 사랑에 더이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0일위에 들은 그분의 서거 소식은 너무나 그 충격이 컸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교황성하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행도 그 성과가 매우 좋았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모두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소위 「7.6사태」에 대한 소식을 외국에서 들었을 때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성령의 섭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7.6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치해있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캐나다에 와서야 비교적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교구장의 부재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교구내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애써주었던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우리 교구를 찾아 격려해주신 추기경님과 주교님들, 타교구의 신부님들과 평신도들의 형제적 입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바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마운 일은, 이 소식을 들은 캐나다의 한국인 교형자매들이 박종상 신부의 건강을 염려하며 현금해주고, 귀한 약재(응답)까지 본인을 통해 박신부에게 전하게 한 일입니다. 또한 문정현 신부를 위해서도 현금해주던 일입니다.

다시 감사드리며, 귀국인사를 대신합니다.

—김 재 덕 주교

숲 정 이 산 채

우리모두 얼마나 기다렸단구요!



가난한 노동자, 농민에 대해 애정을 갖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정성현·유남선·박명근 형제의 공판 방청기

지난 7월 29일 10시 춘천 지방법원에서는 가톨릭 농민회 본부 협동사업부장 정성현, 춘천 교구연합회장 유남선, 부회장 박명근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세 형제들의 구속 경위는 “불은문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문제시한 “불은문서”란 다름아닌 농민회 소개를 위한 자료로서 총 4페이지중 3페이지는 농민문제와 농민회 활동소개이고, 1면은 농민문제에서 연유되는 노동자 문제와 학원동향을 간단히 언급한 것이다.

사찰 당국이 유인물중 구체적으로 문제시한 부분은

(1)민중화 능력부족 이라는 미명하에 조합장을 국가가 임명하여 조합장은 농민이 아닌 장관, 도지사, 군수에게 충성한다. 농협의 대의원인 총대도 저희들끼리 적당히 임명하여 총대 선거권자인 농민은 저희 총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2)학원 시위에 관한 소식

검찰당국은 이러한 사실이 사실 왜곡이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함으로 긴급조치에 위반되며, 실제로 유인물 제작 관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정성현, 유남선 두 형제를 마치 유인물 제작의 주도자인양 취급하여 4월 12일 구속하고, 박명근 형제는 이러한 억울한 구속 경과 보고를 신부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회에서 읽었다고 해서 5월 26일 정식 구속되어 재판받게 된 것이다.

1회 공판은 7월 10일에 있었고, 2회 공판은 7월 24일, 선고 공판은 7월 29일에 있었는데 정성현, 유남선 형제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박명근 형제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2회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논고를 통해 유죄의 이유로 “농협 총대선출 관계 기사가 사실왜곡이고, 신문과정에서 검사 앞에서 성호트는 것을 한번도 못봤으므로 반정부 활동을 위해 교회를 은닉처로 삼은 가짜 신자다. 피고인들의 이런 활동들은 종력안보를 저해하고 이북의 통일 전선에 말려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성현, 유남선 형제에게는 10년을, 박명근 형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본인들의 진술은 말할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유인물 제작에 관여하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증인들도 “유인물 제작에 정성현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유남선 형제도 직접 관계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했다.

홍성우 변호사는 “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은 처벌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국가의 안정을 해치거

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수호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 긴급조치인데, 이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자고 촉구한 것이 고작인데 그것이 어떻게 긴급조치에 위반되느냐?”고 하면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미워서 죄를 적용한것 같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인들이 증언이나 본인들의 진술은 무시된채 7월 29일에 있는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춘천 교구장 박주교님은 기관원이 있는 자리에서

“(1)이번 재판은 증언이나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었다.

(2)구속된 형제들은 착실한 신자로 알고있다. 그런데 검사가 신자다, 신자 아니다 이야기 할 권리는 없다. 이는 교권에 대한 침해이다.

(3)주교가 고해성사와 영적지도를 할려고 했지만 제지 당했다. 사형수에게도 할 수 있는 영적지도가 미결수인 세 형제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는 춘천 교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교회의 문제”라고 견해를 피력하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중임을 밝혔다.

이날 세 형제들은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가톨릭 농민회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에게 보내온 성금

합월 상지원(나환자촌) 공소 보수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이 잘 보수되어 복음 전도가 증진하기를 기원하면서 봉헌하나이다

—전주시 서노총동 648-33

성심당 한약방 이상범

※ 성금 20,000원

—금산 천주교회 7,000원

—대야 천주교회 5,000원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들을 위한 성금도 접수합니다.

토막소식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전주에서 제 8회 전국 청년 교육대회(8. 14~17)를 갖던 중, 지난 16일 오후 평화적 시위를 하다가 90여명의 청년회원이 연행되었다.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등 압 (모이세)

교육용·가정용·교회용·연주용

당신을 위한

써니 (SUNNY) 전자 울건

※ 교우들에게 특별 영가 봉사

☆ 대리점: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대 표: 염 규 철 (요섭) 2-6111



표창받은 어머니 마리아 (1)

김 영 구 신부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사회에서도 어머니 날을 제정하여 지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날은 언제냐고 하니 어머니 날을 내놓고는 다 아버지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노고와 어머니의 노고를 비교하면 아버지의 노고는 날을 지킬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임신 10개월에서 부터 시작하여 낳아서 기르는 고생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과 눈물로 기름을 말려가며 기르는 그 고생이 어머니의 고생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아버지 문상은 3년이고, 어머니는 1년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날은 없어도 어머니 날을 제정하였으니, 어머니들은 감사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노고를 치하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표창받은 어머니 마리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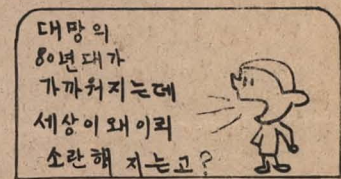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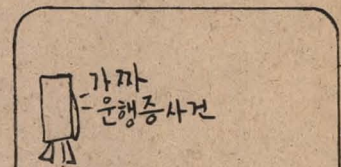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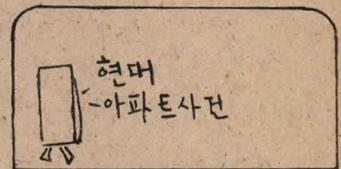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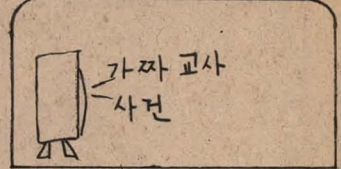
이 세상에 어머니로 생활한 사람은 많습니다. 또 많은 고생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표창받은 어머니가 있고 현모가 아닌 악모도 있습니다. 루카 1장 26-38 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여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뜻을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모범적인 어머니요, 희생적인 어머니요, 공헌적인 어머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머니가 있었고, 유대 나라에서도 많은 어머니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수 많은 어머니 중에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여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하셨는가를 알아 봅시다. 마리아의 미모? 학벌? 재능? 그 보다는 마리아의 심령이 하느님 앞에 아름다웠고 그 행위가 선행했고 또 성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서 "사나이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더니 말하기를 "성령이 네게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분의 힘이 짝잡 주실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 하였읍니다. 이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다고 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매장되고 말것입니다. 행실이 나쁘다, 죄인이다, 창녀다, 별별 추잡한 소리가 다 나올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입니다. 율법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죽습니다. "천사님이여, 나는 못합니다. 다른 여자에게나 가 보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설혹 버림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생에 불행한 가정이 될 것을 생각할때,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계속)

□ 성모승천 □

요심이 (264) 김병오



천 주 스타 사진관
전화 ② 6094
급구 견선품 모집
만 16세~20세 미만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운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동
(전화 ③ 4577, 578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 중원(아오스당)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원규 (야교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본 교구 교구장 김재택 주교님, 8월 10일 귀국(1번 귀국 인사 참조)
- 1. 신부·수녀 성서연구회...21일<월> 오후 5시-24일<목>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 2. 전주교구 정의평화 기림미사...23일<수> 오후 8시30분, 중앙성당
- ※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많은 참석 바람
- 3. 군산지구 청년연합회 순회미사...2일<토> 오후 8시, 팔마성당
- 4. 제2차 성심여중고 신자 동창회...오늘 10시 반, 모교에서, 회비 1천원
- ※ 76·77학년도에 졸업한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준비-미사도구)
- ※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모교 밀알 편집실로 연락 바람
- 5. 추기경기 쟁탈 전국 웅변대회-예선(8월 27일 오후 2시, 교구청)
- ※ 참가 희망자는 평현 사무국(☎ 5098)에 문의 바람
- 6. 중고등 학생 교리 경시대회...9월 10일, 범위...주요기도문, 요한복음, 가톨릭교리서 1~18과
- ※ 회장단 회의...27일 10시, 가톨릭센터
- 순정이 대금증 도와주세요.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웅	복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복	석

-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강당)
- 유아세례: 25일(금) 오전 11시
- 예비자 교리: 26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미사시간 엄수바랍니다.
- 공식미사 전례담당
금주(20): 부사-엄관섭, 김형택 해설-임주택
다음주(27): 부사-오중원, 김한영 해설-함문권
- 중앙 청년회 단합 체육대회: 8월 27일 08.30-19:00
장소: 해성고등학교
참가: 교리교사, 대학생회, Cell, 지도자, 청년합창단, 레지오마리에
주최: J. O. C 후원: 사도회

□ 지난주 봉헌금: 161,241원

- 일일교장: 오늘 강기연 형제
- 지난주 봉헌금: 131,720원 성모승천 헌금: 77,100원
- 특별헌금: 5,000원 수입이자: 8,548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 부녀주일: 10시 미사후 월례회
- 사제연구회: 미사없음(21일~23일)
- 신축헌금(제11반)
김광수(50,000원) 김동호·박희석·김복임(각 10,000원)
박기흠(30,000원), 이익순·이명구(각 5000원)
이재득(6,000원), 정영조(12,000원), 안재원(11,000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 중·고등학생 특별교리: 19일~23일
무사히 마쳤음 수녀님 감사합니다
- 유아세례식: 다음주 공식미사
- 요안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전교 수녀님 한달간 피정마치고 23일날 돌아오셨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용조합원이 되어 내가정 부강하게 만듭시다

□ 지난주 봉헌금: 109,560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륙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
-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유아 영세식: 8월 26일(토) 오후 1시반까지 대부분
올 모시고 사무실에 나오세요
- 감사합니다: 성모회에서 성당에 벽시계 1점 증
-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75,01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중

- 피미씨음: 오늘 오후 2시
- 예비자 교리: 주일 학생·학생미사 후
일반: 10시미사 후
수요일: 8시 미사후(청년)
금요일: 8시 미사후(직장인)
영세 예정일: 9월 26일
- 교무금 납부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2,402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 축! 첫영성체 12명 교리교사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자카드 작성위한 가족사진 준비하세요
- 당분간 월-목 저녁미사없으니 아침미사 이용하세요
- 중·고생 토요일 5시미사에 많은 참석 바람
- 대학생 회원모집: 일요일 오전 8시 30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람
- 우리는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예비자 안내 바랍니다

□ 성모승천 헌금: 24,950원
□ 지난주 봉헌금: 93,210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	정	현
사도	회장	채	수	현

-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8월 24일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수녀원 중축 변소설치 기금 신입
전신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안내: <금> 오후 5시<매주> 공식미사후
- 교무금 납입자
이승규(5,000), 임순희(2,000), 강명수(12,500),
장남승(2,400), 장봉례(4,400), 양현홍(50,000)
이봉원(1,000)

□ 지난주 봉헌금: 41,870원
성모승천 특별헌금: 30,19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미사안내: 주일-오전 5시 30분, 10시 공식미사
오후 4시 어린이미사, 8시 저녁미사
평일-월: 오전 10시 어머니미사
화: 저녁 8시
수: 새벽 5시 30분, 목·금·토: 저녁 8시
- ※ 신구약 성서, 공동체 성가집 지참 늦지 않도록
- 예비신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 청년회 1차 월례회: 8월 20일 9시30분
장소: 신리 수원지
※ 매주(수) 회합에 결석 않도록!